<정답 및 해설>(Ⓑ책형)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④	④	③	①	④	①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④	②	②	③	②	④	③	③

1. [정답] ① [어문 규정. 난이도 下]
[풀이] '퍼레서'는 '퍼레지다'의 활용이므로 표기가 적절하다. 참고로, '파래지다'는 '파래서'로 활용한다.
[오답]
②: '똬리를 튼 뱀'이 맞다. '똬리'는 '둥글게 빙빙 틀어 놓은 것. 또는 그런 모양'을 뜻한다. 참고로, '갈퀏발의 다른 끝을 모아 휘감아 잡아맨 부분'을 뜻하는 '또아리'가 따로 있다.
③: '머리말'이 맞다. '머리말'은 [머리말]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인사말, 예사말, 농사일' 등도 같은 경우이다.
④: '잠가야'가 맞다. 기본형 '잠그다'의 활용은 '잠가, 잠가서, 잠갔다' 등이다.

2. [정답] ② [어휘. 난이도 上]
[풀이] '말길[말:낄]'은 '말하는 길' 또는 '말하는 기회 또는 실마리'를 뜻하며, '말길이 되다'라는 관용구는 '남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의논의 길이 트이다.'라는 의미이다. 제시된 문장은 사전에 그대로 등재된 사례이므로 사전을 통해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오답]
① '말꼬리를 물다':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 예) 그는 내 말꼬리를 물어 계속 설명해 나갔다.
③ '말이 있다':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 예) 이미 다 말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너 혼자만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④ '맛(을) 붙이다': 마음에 당겨 재미를 붙이다. 예) 그는 요즘 등산에 맛을 붙여 매주 일요일마다 등산을 한다.

3. [정답] ④ [어휘. 난이도 下]
[풀이] '쌈'은 바늘 24개, '제(劑)'는 한약 20첩, '거리'는 오이나 가지는 50개이다. 따라서 숫자의 합은 94이다.

4. [정답] ④ [문학. 난이도 上]
[풀이] 제시된 작품은 허난설헌의 한시 <봄비[春雨]]>이다. 봄비를 보며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다.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자신을 봄비에 떨어지는 살구꽃에 이입하여 나타내고 있다.
[참고] 허난설헌의 <봄비[春雨]]>
주제: 봄비를 바라보는 여인의 쓸쓸함과 우수(憂愁)
시상 전개 방식: 선경후정(先景後情)
특징: '봄비', '찬 바람', '지는 살구꽃' 등의 구체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외로움을 표현함.
본문: 1행-봄비가 내리는 쓸쓸한 정경. 2행-쌀쌀한 기운이 쓸쓸함을 더함. 3행-독수공방하는 여인의 한. 4행-지나가는 봄에 대한 아쉬움.

5. [정답] ③ [문학. 난이도 中]
[풀이] '언치 노하'는 술을 마시러 급히 떠나는 기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다. '언치'는 말이나 소의 안장이나 길마 밑에 깔아 그 등을 덮어 주는 방석이나 담요이며, 누운 소 위에 방석만 깔고 떠나는 태도를 통해 엄격한 형식을 갖추지 않고 풍류를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②: 누운 소를 발로 찼다는 것은 빨리 술을 마시러 가고 싶다는 역동성과 생동감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다.
[참고] 정철 시조의 주제: 시골 마을에서 한가하게 생활하는 흥취.

6. [정답] ① [한자. 난이도 上]
[풀이] 장광설(長廣舌)(길 장, 넓을 광, 혀 설): ① 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 ②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 예) 장광설을 늘어놓다.
유언비어(流言蜚語)(흐를 유, 말씀 언, 날 비, 말씀 어):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 예) 유언비어를 퍼뜨리다.
변명(辨明)(밝힐 변, 밝을 명):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 예) 변명을 늘어놓다.

7. [정답] ④ [문학. 난이도 中]
[풀이] '잠착(潛着)하다'는 '참척하다'의 원말이며,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똘하게 쓰다.'는 뜻이다. 이 시에서는 바깥 풍설(눈바람)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단순히 '생각하고 헤아려 보다'는 뜻의 '고려(考慮)하다'와는 다르다.
[참고] 정지용, <인동차(忍冬茶)>(1941)
주제: ① 산중의 고요한 정경 ② 현실을 극복하고 견디는 인내(忍耐)
성격: 동양적, 관조적(觀照的), 은일적(隱逸的), 도교적, 시각적
어조: 고요하고 적막한 어조, 절제된 어조
내용: 이 시는 정지용이 추구했던 동양적 세계를 잘 보여주는 시로, '산중에 책력도 없이', 인동차를 마시며 살아가는 '노주인'인 작중 인물은 바로 시인 자신이며, 그가 마시는 '인동차'는 겨울로 표상된 일제 치하를 견디게 하는 인내와 기다림의 힘이 되어 준다.

8. [정답] ① [문법. 난이도 下]
[풀이] '내가'는 주체를 높이지 않은 경우이므로 [주체-], '선생님께 ~ 드렸다'는 객체를 높였으므로 [객체+], '순희야, ~다'는 반말체이므로 [상대-]이다.

9. [정답] ① [비문학. 난이도 上]
[풀이] 칸트는 미(美)에 대해 자율적 견해를 지니고 있다. 내재적인 예술 작품의 특성을 밝히고, 어떤 맥락으로부터도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을 '시'에 적용하면 현실, 도덕, 목적과 무관하게 시어나 운율 등 내적으로 감상하는 ①번과 부합한다.

[오답] 나머지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는 반영론, 독자의 정서적 성장과 관련된 효용론, 목적론 등에 해당하므로 칸트와 상반된다.

10. [정답] ② [어휘. 난이도 中]
[풀이] '새우잠'은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 주로 모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을 의미한다. 한편, '안잠[안짬]'은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 또는 그런 여자'를 뜻하므로, '새우잠'과 전혀 관계가 없다.
[오답]
① 파적(破寂)(깨뜨릴 파, 고요할 적): 심심풀이(심심함을 잊고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함). 예) 기다리는 무료를,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목전에 두고 그들은 그렇게 잡담으로 파적을 삼았다.
③ 난장(亂杖)(어지러울 난, 몽둥이 장): 몰매(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덤비어 때리는 매).
④ 사관(四關)(넉 사, 기관 관): 양쪽의 팔꿈치와 무릎 관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예) 사관에 침을 놓다.
[참고 1] 구메밥[구메밥]: 예전에, 옥에 갇힌 죄수에게 벽 구멍으로 몰래 들여보내던 밥. 예) 구메밥을 먹다. 구메밥을 들여보내다.
[참고 2] 김유정, <만무방>(1935)
주제: 식민지 농촌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농민의 참담한 삶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특징: 반어적 상황('내 것을 훔쳐야 하는 운명')을 통해 현실의 피폐함을 선명하게 부각시킴.

11. [정답] ① [문학. 난이도 中]
[풀이] 제시된 작품은 조선 전기의 문인 변계량의 시조이다. 타고난 착한 천성대로 살아야 함을 주제로 하며, 무슨 일이든 옳고 그름을 잘 가려서 행해야 함을 경계하여 지은 작품이다. '솔성(率性)(거느릴 솔, 성품 성)'은 '타고난 성질' 또는 '천성을 좇음'을 뜻하며, 제시된 시조의 주제로 적절하다.
[오답]
② 선교(善交)(좋을 선, 사귈 교): 잘 사귐.
③ 준법(遵法)(좇을 준, 법 법): 법률이나 규칙을 좇아 지킴.
④ 독학(篤學)(도타울 독, 배울 학): 학문에 충실함.
<참고> 독학(獨學): 스승이 없이, 또는 학교에 다니지 아니하고 혼자서 공부함.
[해석] 변계량의 시조 해석

>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해서 남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며
> 남이 한다고 해서 의롭지 못한 일이면 따라하지 마라
> 우리는 하늘에서 타고난 올바른 심성을 지켜 타고난 대로 하리라.

12. [정답] ③ [어문 규정. 난이도 中]
[풀이] '깨단하다'는 '오랫동안 생각해 내지 못하던 일 따위를 어떠한 실마리로 말미암아 깨닫거나 분명히 알다.'는 뜻의 동사이다. 예를 들어, '어째서 내가 여태 그런 좋은 방법을 깨단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행동하였단 말인가?' 등의 형태로 쓰인다.
[오답]
①: '뉘연히'는 틀리고, '버젓이'가 맞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이'를 뜻한다. 참고로, '해가 곧 지려고 하는 상태로'를 뜻하는 '뉘엿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
②: '뒤어내다'는 틀리고, '뒤져내다'가 맞다. '샅샅이 뒤져서 들춰내거나 찾아내다.'를 뜻한다.
④: '허구허다'는 틀리고, '허구(許久)하다'가 맞다.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를 뜻한다.
[참고] **[2017. 6. 11. 지방직 대비 직전 TT 모의고사]** 7번 적중!

> 7.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사나이는 몸이 너무 강팔라서 불쌍해 보였다.
> ② 그 애는 하는 짓이 워낙 곱살끼어 귀엽지 않다.
> ③ 이 부장은 부하 직원을 면전에서 닦아세우는 버릇이 있었다.
> ④ 큰일 치르느라 깨단할 텐데 어서 자라.
>
> 7. [정답] ④ [어휘. 난이도 上]
> [풀이] ④번에는 '고단할'이 들어가야 한다. '고단하다'는 '몸이 지쳐서 느른하다.'는 뜻의 고유어이다. 참고로, '깨단하다'는 '오랫동안 생각해 내지 못한 일 따위를 어떠한 실마리로 말미암아 깨닫거나 분명히 알다.'는 뜻이며, '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이제야 깨단하게 되다니.' 등의 형태로 쓰인다.
> [오답]
> ① 강파르다: 몸이 야위고 파리하다.
> ② 곱살끼다: 몹시 보채거나 짓궂게 굴다.
> ③ 닦아세우다: 꼼짝 못 하게 휘몰아 나무라다.

13. [정답] ④ [한자. 난이도 中]
[풀이] '일조'는 문맥상 '하루아침'을 뜻하므로, '一朝(한 일, 아침 조)'로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의 소망은 일조(一朝)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의 형태로 쓰인다. 참고로, '일조(日照)(날 일, 비칠 조)'는 '햇볕이 내리쬠'을 뜻하며, '볕 쬠'으로 순화해 쓰는 단어이다.
[오답]
① 확집(確執)(굳을 확, 잡을 집): 자기의 의견을 굳이 고집하여 양보하지 아니함.
② 위의(威儀)(위엄 위, 거동 의):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
③ 강도(强度)(강할 강, 법도 도): 센 정도.
[참고] 조지훈, <지조(志操論)>(1960)
글의 종류: 중수필
성격: 교훈적, 논리적, 설득적, 시사적
주제: 지조 있는 삶의 자세
내용: '변절자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이 글은 친일파들이 정치 일선에서 행세하고, 정치가들이 지조 없이 변절을 일삼는 당대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지금 비난받는 자들이라도 열심히 자기 성찰에 힘쓰고 지조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14. [정답] ② [문법. 난이도 中]
[풀이] '㉠흐드러지다, ㉡충만하다, ㉢없는'은 성질이나 상태의 형용사

이다. 현재형('-ㄴ다', '-는다'), 명령형('-라'), 청유형('-자'), 관형사형('-는')이 안 되면 형용사이다. 이때, '없다'는 '없는'이 되지만 '없는다'가 안 되므로 형용사이다.

[오답] '㉡찍은, ㉢설레는'은 동사이다. '찍은'은 '찍는'이 가능하다.

[참고] **[2017. 3. 동형 모의고사 6회]** 9번 적중!

9. 다음 제시문의 밑줄 친 단어들을 같은 품사끼리 묶어 놓은 것으로 옳은 것은?

> 친구들과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찍은 사진은 그때의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충만한 봄 내음, 친구들과의 악의 ㉤없는 농지거리, 벌들의 잉잉거림까지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 해 준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9. [정답] ② [문법. 난이도 上]

[풀이]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 관형사형 '-는"을 넣어서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이다. '㉡, ㉢, ㉧'은 동사이고, '㉠, ㉣, ㉤, ㉥'은 형용사이다. 참고로, '㉦'은 부사이다.

[참고] '㉥'의 '있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 머무르거나 사는 상태이다.'를 뜻하는 형용사이다.

15. [정답] ② [비문학. 난이도 上]

[풀이] '정상(定常) 과학'은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척시키는 과학이다. 이때의 '정상(定常)'은 '일정하여 늘 한결같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다. 밑줄 바로 아래에 답이 있다.

[오답]

①: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론이 정립되어 있으므로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하거나 이론이 다양해지지 않는다.

③: 완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④: 정상 과학의 시기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하진 않았다. 오히려 과학자들의 열정이 필요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16. [정답] ③ [어휘. 난이도 下]

[풀이] 한 단어에는 여러 개의 유의어가 있다. '어림하다'는 '대강 짐작으로 헤아리다'는 뜻이다. 예문으로는 '이 책들을 권당 5,000원으로 잡아도 100권이면 50만 원이다.'의 '잡다'가 적절하다. 참고로, '술값으로 잡다'는 '담보로 맡다'의 뜻이다.

[오답]

①: '(돼지를) 잡다'는 '짐승을 죽이다.'라는 뜻이다.

②: '(멱살을) 잡다'는 '손으로 움키고 놓지 않다.'라는 뜻이다.

④: '(불길을) 잡다'는 '기세를 누그러뜨리다.'라는 뜻이다.

17. [정답] ② [비문학. 난이도 中]

[풀이] 조간대(潮間帶)의 중부에 사는 생물에 대한 답은 지문에서 찾을 수 없다. 다만, 마지막 단락에 조간대의 상부에 사는 생물인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이다.

[오답]

①: 마지막 문단에서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은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상부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조간대에 사는 생물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종이 수직으로 분포한다고 설명했다.

④: 첫 문단에서 조간대는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되는 상반된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18. [정답] ④ [쓰기 영역. 난이도 中]

[풀이] 글의 개요에서 수출 실적이 부진한 요인으로 가격 경쟁력의 측면과 비가격 경쟁의 측면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적했으므로,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①이 적절하다. 무엇보다도 '수출'이라는 중심 소재가 드러나야 주제문의 조건에 부합한다.

[오답] ③: 중심 소재인 '수출'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주제문이 될 수 없다.

19. [정답] ③ [문법. 난이도 下]

[풀이] 대명사의 대상을 묻는 문제이다. ㉦의 '당신'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존칭 표현으로, 3인칭 대명사이다. 따라서 ㉣과 ㉤, ㉦은 모두 '할머니'를 가리킨다.

[오답]

①: ㉠의 '그쪽'은 2인칭으로 쓰였다. ㉥과 같은 인물이다.

②: ㉡의 '우리'는 1인칭이므로 ㉢만을 포함한다. ㉣'할머니'는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의 '당신'은 청자인 '그쪽'이다. ㉤의 '본인'은 ㉣의 '할머니'를 지칭한다.

20. [정답] ③ [비문학. 난이도 中]

[풀이] 제시문은 '동물의 소리는 인간의 언어와 다르다.'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과 ㉡은 동물들의 소리가 인간과 유사한 의사소통의 수단임을 설명했다. 그러나 ㉢ 동물의 소리가 인간의 말과는 다른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앞의 내용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①: ㉠은 글의 도입이므로 결론이 아니다.

②: ㉡은 ㉠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④: ㉤은 ㉢과 ㉣에 대한 결론이다.

<2017년 지방직 9급 국어 총평>(Ⓑ책형)
(天衣無縫 정원상 국어)

1. 출제 결과 (평가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유형	2016년 문항수	2017년 문항수	비율
1	비문학	5	4	20%
2	어휘	1	4	20%
3	문학	3	3	15%
4	문법	2	3	15%
5	한자	2	3	15%
6	어문 규정	2	2	10%
7	쓰기, 어법	1	1	5%
8	한자성어	1	0	0%
9	속담	1	0	0%
10	토론과 토의	2	0	0%

2. 최근 치러진 지방직 9급 시험 중 가장 어려웠습니다. 한자와 어휘, 독해력이 합격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 2015년, 2016년 지방직 9급 모두 대체로 어려운 편이었지만 2017년 지방직 9급 시험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80점 이상이면 잘 본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렬에 따라 85점 이상이면 합격권도 가능해 보입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었으며, 점점 공통 과목의 난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니 전 영역에 대해 철저히 공부해야 합니다.
- 비문학과 어휘 영역에서 4문항씩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문학 지문이 길고 정보 확인 문제가 많아서 문제를 푸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문학 독해의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비문학 지문을 보고 독해 연습하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유어 2문제, 단위어 1문제, 다의어 1문제 등 어휘 영역에서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식을 검증하는 어휘 능력은 성실한 노력과 시간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론서의 어휘를 토대로 평소에도 사전을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최근 경향이 그렇듯이 한자 관련 문제가 4문제로 많이 출제되었으므로 한자의 표기와 독음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7급뿐만 아니라 9급 시험에서도 한자 관련 문제가 최소 3문제 이상 출제되는 경향이므로 동음이의(同音異義)와 동자이음(同字異音) 한자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특히, 한자 관련 문제는 난도가 높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이론서에 있는 한자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한자어를 항상 써 보고, 구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앞으로 공무원 시험 문제는 단순 암기의 지식을 지양하고 사고력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비문학 지문을 꾸준히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독해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500자 이내의 단문 독해뿐만 아니라 1,000자 이상의 장문 독해도 연습해야 하며, 신문 사설이나 칼럼 등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 '시간'이 곧 '실력'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국어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면 다른 과목에도 연쇄적인 부작용이 초래됩니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구별하여 효율적으로 풀고, 장문을 독해할 때 핵심을 빨리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며, 어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네모 및 제시문 문제가 17문제나 됩니다.

- 단편적인 문제 유형이 아니라 네모 또는 제시문을 주고 푸는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사고력 중심, 감상 중심, 독해 중심의 문제로 이동한 유형이므로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이 계속 출제될 것입니다. 다양한 지문을 읽고 핵심을 빨리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지식과 독해가 병행된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푸는 시간을 줄이면서 정확한 답을 빨리 도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200자 이내의 단문부터 1,000자 이상의 장문까지 빠르고 바르게 독해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 공식적인 문학 문제는 3문항이었지만 문학 지문이 7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현대시와 시조 두 편 등 운문 문학에서 출제된 것은 2016년 지방직 시험에서 산문 문학이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반대 유형이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고유어나 한자의 표기, 일치 등에서도 문학 관련 내용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접하고 감상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4. 고난도 문제가 있습니다.

- 2번, 4번, 6번, 13번, 9번 문제 등의 문제에서 학생들이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자와 비문학 문제가 어려웠고, 문학, 어휘 등에서도 고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난도 문제를 극복해야 합격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하나의 정답을 찾는 데에 집중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10번, 11번, 13번, 18번 등 중상의 난도 문제들도 다수 있어서 학생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정답에 확신이 없을수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가장 가까운' 정답을 먼저 찾고, 답이 없을 때는 소거법(消去法)을 통해 틀린 것들을 우선 지워나가는 요령을 통해 정답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고난도 문제를 해결해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문제 중 고난도에 해당하는 5문제 정도는 별표를 쳐두고 집중력 있고 단호하게 풀어야 합니다.

5.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되었으나 올해 나오지 않은 영역이 있어서 내년에 출제될 유형이 있습니다.

- 비문학, 문학, 어문 규정, 문법, 한자는 계속 중요할 것이며, 내년에도 전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그 중에서 올해 문제로 많이 나오지 않았던 '띄어쓰기, 고전 문법, 형태소와 단어,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비문학 순서, 문장의 짜임' 등도 대비해야 합니다. 올해 기출문제를 통해 내년 문제를 예상해 보는 것도 현명한 공부 방법입니다.
- 어문 규정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중심으로 공부하되, 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론서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어문 규정에 대한 관심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6. "'당연한 노력'을 하자!"

- 수험생들에게 노력은 '당연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잘해야 하는 것, 내 삶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인내하는 것 등은 어렵지만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특별하고 손해 보는 마음이 아니라 당연한 마음으로 노력한 수험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따뜻한 위로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 혹시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낙담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 시험을 위해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시련에 잘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아쉬움보다는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채우는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절망하기에는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흔들리기에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한 발짝 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채우면 됩니다. 묵묵히 어두운 시간을 견뎌 낸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